

# 데스크시각

김일환



연전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 간 적이 있다. 그 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전직 장관 A씨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왜 광주가 문화수도입니까? 전통이나 문화적 소양으로 보아 진정한 문화수도는 전주라고 보는 대요” 그 당시 필자는 침을 튀겨가며 광주문화 전통성과 문화역량을 들어 그 논제에 반박을 했던 기억이 난다. 비단 A씨의 시각만은 아니다. 타지의 문화 식자층의 생각이 그렇다.

그러나 조금하다. 문화수도로서의 자리 매김이 톱조림 찍어내듯 똑딱 해치우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광주·전남의 문화 미래가 달린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있고 거기에 담을 내용물이 불확실한 형국이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든 타지역에, 아시아에, 나아가서는 세계에 확실히 인정받을 문화수도 광주만

## 문화수도, 아바타·아이폰을 배워라

의 콘텐츠로 채워져야 하는 것은 절대적 사항이다. 당장이라도 문화수도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서 풀어야 할 숙제다.

세상은 시시각각 정진없이 변하고 있다. IT가 주축이 되는 새로운 문화혁명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경계가 없는 융합의 시대가 도래해 영역의 구분은 옛말이 돼버렸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상호소통을 통해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8년 전 아시아문화 전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던 때와 지금은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이 하늘과 땅 차이다. 특히 당시에 만들어진 계획에 천착해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

다. 하드웨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콘텐츠)는 틀 자체가 바뀌는 지각변동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점에서 울쑄 대한민국을 휩쓴 두 가지 메가 트렌드에 주목한다. 그것은 영화 아바타와 애플 아이폰 열풍이다.

이처럼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는 “영화 ‘아바타’를 보며 3D에 주목할 게 아니라 생명을 경외시 하는 ‘생명 자본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바타는 콘텐츠 혁명”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석학은 그 영화에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발견하고 있다. ‘창조적 변화’라는 거대한 조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다. 아이폰은 어떤가 그것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혁명이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인 아이폰즈(온라인 시장)를 통해 무한한 아이디어(어플)가 생산되고 팔리고 있다. 단지 아이폰은 그 소프트웨어를 담은 그릇에 불과하다. 아이폰에 사울필 소프트웨어에 소스를 개발자들에게 공개하고 그걸 상품화해 시장에 팔 수 있게 한 자유롭고 기발한 창의력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

‘아바타’만 해도 최근까지 낸 순수익이 3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2만 달러짜리 소니타 승용차 300만대 이상을 수출한 것과 맞먹는 ‘초대박 상품’이 됐다. 애플은

작년 4분기에 870만대의 아이폰을 팔아 4조여 원의 이익을 냈다. 매 분기 5천만대가 넘는 휴대전화를 팔아도 이익은 1조 원 남짓한 노키아·삼성전자와 견류하면 그 위력은 폭발적이다. 이는 문화 콘텐츠가 위상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문화 콘텐츠산업으로서 확장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 광주만의 콘텐츠 개발을

이제 문화수도가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수행해야 할 과제는 자명하다. 빠른 시간 안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추진단뿐만 아니라 문화계, 학계 등 문화수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서야 할 문제다. 형식적인 포럼이나 코드대로 따로 노는 고답적인 논의로는 예전의 구태연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좀 더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볼 필요가 있다. 또, 수직적 사고에 매몰된 관료주의의 틀을 깨야 한다.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기획하고 준비해 볼 것을 과감히 제안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창조적 변화는 도전과 모험정신에서 나온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창조적 변화를 끊임없이 갈망(stay hungry)하는 자만이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지금 당장 창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문화수도 광주는 오래가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 것이다. 창조적 변화의 시작은 광주만의 문화 콘텐츠를 분수처럼 쏟아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여론매체부장) khn8@kwangju.co.kr

### 시설

## 무상급식 전면 확대, 정치적 접근 경계해야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여당의 일부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거판을 달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목포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에 의해 수정 가결됐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시행 시기는 시민·사회단체의 전면적 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단계별 추진안이 채택됐다.

다만 무상급식 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전면적인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무상급식의 당위성은 인정한 반면 재정여건

등 현실적 제반 여건을 감안한 선택이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은 한 정해 있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2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주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전북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정치적 일각에서 좌편향 꼬리표를 붙이는 것과는 달리 이념과는 무관한 정책이다.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전남 지역은 특히 무상급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념적 접근을 철저히 배제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재정 부담이 너무 큰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 내 휴대폰 소지 금지 과연 최선인가

최근 휴대폰의 학교 내 소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이는 매년 신학기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이지만 하지만 올해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김길래 사건’으로 더욱 뜨겁다고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청소년의 납치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자녀의 등·하교시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의 소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학교는 명확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 내 휴대폰 소지는 확실히적인 규제나 금지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폐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휴대폰의 수업 중 통화·문자·게임 등으로 변학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 때문에 휴대폰의 학내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휴대폰은 단순한 통화수단의 의미를 넘어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인권 침해소지가 다분하다.

특히 성폭행·납치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 서비스 기능의 휴대폰을 집에 두고 등교하고 강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등·하교는 물론 방과 후 자녀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다면 학부모의 불안감은 얼마나 클 것인가.

학내 휴대폰 소지 논란은 탄력적 운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등교시 휴대폰을 수거하고, 하교시에 찾아가는 제도 정착, 유비쿼터스 사회에 걸맞은 올바른 모바일 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학교와 사회가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서 문제의 원인이 마치 학생들이 양 휴대폰을 학생들로부터 빼앗는 방법부터 강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은펜클럽

김창균



3월의 학교는 만남의 계절이다. 새로운 학생들과의 대면을 시작으로 학교 업무와 학급 학생 파악, 수업 준비로 교사의 바쁜 일과는 이어진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낯설음보다는 만남에 익숙한 이들에게 새로운 만남이 어울어지는 눈빛과 속삭임이 예사롭지 않다.

이별 때 곡어를 가르치는 필자는 아이들과 이별가 남의 시(낙화)로 ‘이별’을 이야기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만남과 사랑, 그리고 이별을 위하여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정점을 지나면 떨어진다. 미련과 애착을 갖지 않고,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그저 떠나갈 뿐이다. 낙화는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이요, 뒤이을 ‘열매’가 본질임을 알기 때문이다.

문제는 낙화를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다. 화자의 꽃은 ‘사랑’이기에 낙화는 ‘결별’이다. 사랑의 결별 앞에서 화자는 이렇게 심경을 토로한다.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 하동하동 꽃잎이 지는 어느 날 // 썬더에 불고 온 듯 성숙하는 / 내 영혼의 슬픈 논.”

하동하동 꽃잎 지듯 이별을 거쳐 인생도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에 이별의 뒷모습은 아름다워야 한다. 하지만, 결별을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엔 이별의 아픔이 너무 크다. 그러기에 ‘헤어지자’고 말하는 상대 앞에서 이별을 인내하는 ‘슬픈 눈’이 더욱 애잔해 보인다.

최근 세간에 여가수와 방송인의 이별이 화제다. 그들의 아픈 사연이 호사가(好事家)의 입에 오를 일은 아니지만, ‘낙화’의 화자와 관련해 학생들과 이야

기 나눠 보았다. 지나친 단순화했지만,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의 설렘과 추억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며칠을 짐겨하는 쪽에 마음이 갈 것이다. 친구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성숙이라는 당위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랑-결별-성숙’의 도식(圖式)은 쉽지만, 이를 감내하는 화자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진정한 나의 경험으로 녹여내기엔 경험의 깊이가 다름을, 추억의 깊이가 너무 깊

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별 즈음 법정스님의 입적은 또 다른 이별의 지혜로 다가온다. 스님이 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해 소유의 비움을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스님은 스스로를 비웠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여실히 확산 열매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낙화가 열매를 위한 과정이었듯이, 열매는 또한 ‘배움을 위한 과정’이다. 스님이 실천한 청백가풍(淸白家風)의 무소유 정신은 다시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다.

프루스트는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 방출하는 모든 기호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온몸과 마음이 살아 숨 쉬는 사람인데, 내 욕망에 상대를 억지로 맞추려고 함으로써 갈등하고 고민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일이다. 가슴 아픈 사랑과 이별이결랑 상태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욕망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 볼지도 하다. 법정스님이 남긴 비움의 미학을 되새겨 나를 비우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 상대가 떠날 때를 알고 미리 보내는 것도 한 지혜일 것이다. <광주 북성중학교 교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결연을 심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기고

김종호



2010년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이억만리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과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순국한 호국영령들의 충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열들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에 반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도 병역에 관해서는 편견 된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들을 동원한 사례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엔 부끄럽고 죄

부여하며, 인증서와 명문가증을 교부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영구히 게시하고 있으며, 유적지·사찰 등 국·공립시설 이용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우수가문으로 선정된 20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등 상장과 정부 차원의 포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병역이행자 총인원이 많은 가문인 1순위이며, 병(兵)의 의무복무 인원과 병(兵) 총복무개월이 많은 가문 순으로 선정되며, 전사자(순직자)가 있

## ‘병역이행 명문가’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송승선 마음이 든다. 하지만 질병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질병치료 후 자진입대한 의무자, 국외영주권자로 병역 면제됐으나 모국인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군복무중인 의무자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인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다.

‘병역이행 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부, 백부·숙부, 본인·형제 및 사촌형제)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에게

는 가문은 우대하여 선정하게 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27가문이 ‘병역이행 명문가’로 등록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대상의 영예를 누리진 못했다. 하지만 올해 많은 가문들이 ‘병역이행 명문가’를 신청하여 명문가로 선정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선열들의 애국적인 삶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병역이행의 자긍심과 숭고함을 일깨워주어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취지를 심본 감안해 병역이행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

## 광고와 다른 여행상품, 속는 기분 들어 ‘불쾌’

저를 해외여행이라는걸 가보게 되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에 여행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애초에 선전한 것과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광고에 표시된 여행상품 가격을 본 뒤 실제 여행을 가기 위해 알아봤더니 여행사에서는 갑자기 변경된 유통 할증료, 원지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세금, 그리고 선택관광이네 필수관광이네, 옵션이네 하면서 가격이 애초 광고에 나눈 것보다 최고 30% 이상이나 비싸졌다.

이렇게 할 바에야 처음 광고 때 아예 솔직하게 온전한 가격을 제시하는 게 낫지, 뒤늦게 이러한 관광을 가려는 사람은 속았다는 느낌, 바가지 쓴다는 느낌을 안 갖겠는가. 물론 관광이기는 게 현지에서 어떤 관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관광일정과 필수 세금, 할증료 같은 비용 등을 다 포함시켜 온전한 가격으로 관광비용을 산출해 소비자들이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유은진·광주시 서구 덕흥동

### 無等鼓

우리나라에 담배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17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이때부터 문헌에 흡연이 성행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온다. 조선시대 최초의 ‘골초’로 알려져 있는 문신 장유는 자신의 저서 ‘계곡만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여 년 전에 처음 피웠는데, 지금은 위로 높은 벼슬아치고 아래로 심부름꾼에 이르기 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이가 없다”고 적었다. 신윤복의 풍속화나 김득신의 ‘파적도’에도 담배가 등장한다.

네덜란드인으로 조선에 표류했던 하멜이 보기에 조선인들의 흡연 습관은 특이했다. ‘하멜표류기’에는 ‘지금 조선 사람들 사이에 담배가 매우 유행해서 어린이들도 네댓 살부터 피우기 시작한다.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워댄다’고 기록돼 있다.

담배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역사가 길다. 담뱃벌로 인한 화재로 민가와 관청이 소실되는 등 흡연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덕무 같은 학자들은 금연을 주장했고 광해군은 담배법세를 삶어 신하

들이 입금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했다. 반면 대표적인 실학자인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가래가 없어지고, 기가 나리며, 술이 깎다’고 담배 예찬론을 퍼기도 했다.

최근 신안군 증도가 금연의 섬으로 선포됐다. 앞으로는 섬 주민 뿐만 아니라 증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보관함에 흡연 물품을 맡겨야 한다.

지난 2007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는 자동차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조명이 없으며 밤만으로도 옛 추억을 되새기는 ‘다크 스카이(Dark Sky) 섬’에 이어 담배 연기 없는 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금연의 섬 선포도 해서 어린이들도 네댓 살부터 피우기 시작한다.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워댄다’고 기록돼 있다.

담배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역사가 길다. 담뱃벌로 인한 화재로 민가와 관청이 소실되는 등 흡연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덕무 같은 학자들은 금연을 주장했고 광해군은 담배법세를 삶어 신하들이 입금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했다. 반면 대표적인 실학자인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가래가 없어지고, 기가 나리며, 술이 깎다’고 담배 예찬론을 퍼기도 했다.

금연의 섬 선포도 해서 어린이들도 네댓 살부터 피우기 시작한다.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피워댄다’고 기록돼 있다.

담배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역사가 길다. 담뱃벌로 인한 화재로 민가와 관청이 소실되는 등 흡연의 폐해가 발생하자 이덕무 같은 학자들은 금연을 주장했고 광해군은 담배법세를 삶어 신하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92	경정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 F A X > 227-0118	< F A X > 222-8005	< F A X > 222-0195
정 치 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 회 1 부 2200-641	여론매체부 2200-679	< F A X > 227-9500	< F A X > 227-9500
사 회 1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63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 222-4267	사 진 부 2200-691	< F A X > 02-773-9335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